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의 요청 표현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공손 정도 인식 차이*

이경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Lee, Kyung-Mi & Kim, Hae-Dong. (2014). A comparison of teachers' and learners' opinions about the degree of politeness in requests presented in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Modern English Education*, 15(2), 225-249.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opinions on the degree of politeness for the expressions presented in situational dialogs in the thir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in Korea. A total of 60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38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NEST) and 38 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NNEST) in Korea took part in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interviews reveal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pinions between NEST and Korean students. Eight questions out of 20 were found statistically different. Both Korean students and NNEST showed similar opinions. They considered a listeners' social status, age and social distance as major factors in facing situations in which polite expressions should be used. Based on the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not only should various expressions on requests be included i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but also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language expressions should be explicitly taught to enhance learners' pragmatic competence.

[degree of politeness/ELT textbooks/dialog/공손 정도/영어 교재/대화]

I. 서론

영어 학습자가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이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Wolfson(1988)에 따르면, 원어민 화자들은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학위논문 자료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이 연구는 201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제1저자: 이경미, 교신저자: 김해동

발음이나 문법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지만 대화상 공손 규칙들을 위반했을 때에는 상대방을 공손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적절하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원어민 화자들의 공손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선행 요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공손법과 관련된 화용적인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의 하나는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의 상황과 맥락을 학습자들이 적절하게 파악하고 익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우리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에 있는 학습자들은 영어를 모국어나 제2언어로 사용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영어를 접촉하는 방법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표현을 통한 정확하고 올바른 영어의 학습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 표현들의 공손 정도에 대하여 관련 학습자와 원어민 교사가 어느 정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공손'이란 각 언어가 가진 문화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 가령 서양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되는 공손법의 개념이 한국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 동양 언어에서 나타나는 높임법이나 경어체 등과 같은 공손의 개념을 다 수용하지는 못한다 (Ide, 1989). Chen(1993)의 경우 자신의 연구를 통해 서양 문화권과 동양 문화권의 공손법의 사용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며 문화권 마다 공손법을 실현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Brown과 Levinson(1978, 1987)은 공손의 정도가 특정한 체면 위협적 행위에 대한 부담감의 정도와 관계가 있으며 이는 문화마다 다르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공손 표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우리나라 학습자들과 원어민의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고 하겠다.

의사소통 기능으로 공손과 관련 하여 주로 사용되는 화행에는 요청, 감사, 칭찬, 거절, 사과 등이 있다. Ellis(1997)는 교과서와 관련된 실증적 평가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보다는 세부영역에 초점을 두고 현장 교사와 학습자관련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화행들 중에서 '요청' 관련 화행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원어민 영어 교사와 한국인 영어교사,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 간의 요청의 공손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교사와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손성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 예문에 제시된 공손 표현들에 대한 영어 원어민 교사와 우리나라 학생 간의 공손함의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2)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한국어인 영어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학습자와 원어인 교사의 인식 정도를 비교 분석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유의미한 관련 정보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첫째, 영어 교사들이 공손 표현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설명하는 방안, 둘째, 향후 교과서 집필 시 감안해야 할 점. 이러한 측면들이 본 연구의 잠재적 가치이며, 결과 분석에 따른 제언은 현장 교육, 교사 교육 및 중학교 3학년 교과서 개발과 평가를 위한 교육 과정의 의사 소통 예시문의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학습자가 취약한 의사 소통 예시문을 보장하는 자료로 본 연구결과가 참고될 수도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환경에 따라 관련 언어 사용이 달라지는 화행들 중에서 요청 관련 화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요청 화행과 관련하여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성을 서술하고 이어서 요청의 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또한 관련 교과서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요청의 공손성에 대하여 분석 조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보고 이들 선행 연구들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기로 한다.

1. 요청 화행에 대한 연구

요청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는 언어적 행위로 Austin(1962)은 이를 실현을 위한 발화로, Searle(1976)는 이를 지시적 행위라고 한다. Bach 와 Harnish(1982)는 요청을 화자가 원하는 일련의 행위나 의도를 청자가 이뤄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언어 행위라고 한다. Blum-Kulka(1987)는 요청은 청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사전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요청은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청자로 하여금 행위를 실현 하도록 하는 지시적이며 실제 행위에 앞선 언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요청은 청자에게 행위를 실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손의 정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Brown과 Levinson(1987)은 요청을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본다. 다시 말해 청자는 요청을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화자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거나 또는 청자의 체면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요청하는 것을 망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손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체면 위협 행위 요소가 세가지가 있다고 본다. 이는 화자와 청자의 친밀감과 관련된 사회적 거리감,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체면 위협 행위가 그 문화 속에서 부담을 주는 정도 이다.

Ervin-Tripp(1976)는 유대감을 요청의 공손 정도를 구분하는 요소로 본다. 즉 유대감이 강한 관계일수록 체면 위협이 강한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유대감이 약한 관계일수록 체면 위협이 적은 간접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이다. Ellis(1994)도 요청을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던 행동을 멈추도록 하는 화자의 시도라고 보고 이와 관련한 체면 손상의 위협이 있으므로 요청은 언어 학습자에게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하여 Lakeoff(1973)는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요청시 공손 하게 언어를 사용 하여야 한다고 한다. Leech(1983)도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위하여서는 공손한 언어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청자에게 비호의적인 표현은 최소화하고 동시에 호의적인 믿음의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 핵심인 전략이다. 이들 학자들의 논의에 따르자면 영어 학습자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와 성공적인 요청 관련 의사소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요청의 공손 정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 공손성에 대한 연구

문화 간 공손 전략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문화 간 공손 전략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양면이 존재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중 하나로 Blum-Kulka(1987)의 연구가 있다. 그는 히브리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호주 영어 등을 대상으로 요청 화행을 연구한 결과 이들 화자들에게는 관례적으로 쓰이는 간접적인 표현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이 표현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요청 전략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전략의 하위 전략들은 언어마다 다른 형태로 실현됨을 보고하고 있다. Tannen(1981)은 미국 영어 화자들과 그리스어 화자들의 요청 화행을 비교한 결과 그리스어 화자들이 더 직접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공손성과 관련하여 요청 화행이 초점은 아니나 동양권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있다. Chen(1993)은 영어와 중국어에서 발견되는 칭찬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여 공손법의 특수성을 논하였다. Beebe와 Takahashi(1989)는 일본어 화자들이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를 할 때 미국 영어 화자들보다 청자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 문화에서 나타나는 공손법의 특수성을 서구 문화의 특수성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홍진옥(1999)은 한국인 영어 화자가 영어로 공손한 표현을 할 경우 한국어의 공손법 실현 양상인 구별적 공손법으로 인하여 오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원표(1996)는 사회적 관계가 다른 한국어 화자 간의 칭찬 화행에 나타나는 공손 전략을 분석하고 이것을 중국과 미국의 화행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 위치나 역사적 관계로 보아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한국의 칭찬 화행은 미국의 칭찬 화행

과 더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같은 문화권에서도 국가, 지역, 전통, 언어에 따라 공손법의 특수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Hijirida와 H. M. Sohn(1986)은 공손 표현의 변수를 친족관계, 나이, 성, 지위와 신분, 집단성, 친밀감, 그리고 평상성으로 제시하고 이들 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비교했다. 연구 결과, 미국인은 친밀감에 민감한 반면 일본인은 집단성에 한국인은 나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영(2001)은 광주광역시에서 소재한 대학교 학생 149명과 영어 원어민 강사 26명을 대상으로 영어 공손성 표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인 집단은 원어민 집단보다 청자의 사회적 신분, 나이, 친숙함 등의 변인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원어민 집단은 그 현상이 덜하여 대체적으로 낮춤의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손아래, 순위, 낮선 사람에 별 구애 받지 않고 이들을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요청과 공손 정도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은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요청과 관련한 공손성 전략은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사회적 지위나 거리에 영향을 받는 강도나 민감한 부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자들은 목표어의 공손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교과서에 나타난 요청 화행/공손성 연구

우리나라의 요청 화행 관련 연구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교과서의 표현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특징은 원어민 화자의 표현을 분석의 준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표현을 학습한 학습자와 원어민 화자의 표현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손위철(1999)은 요청 표현의 기준으로 Gibbs(1981)의 요청 유형을 분석의 틀로 삼고 당시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2학년 교과서가 영어의 공손 표현과 관련하여 얼마나 다양한 요청 표현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분석 교과서 대부분이 사회적 요인 제시에 있어 편중된 분포를 보였고 대화자 간의 지위가 같은 친구와 아는 사람의 대화가 최소 65% 이상 제시되는 대화 예문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요청 유형을 통해 공손 표현이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분석의 틀로 삼은 Gibbs(1981)의 결과와 교과서 대화예문의 요청 유형 빈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비슷한 연구로 김영란(2003)은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표현을 같은 기준인 Gibbs(1981)의 요청 유형 분류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중학교 3

학년 교과서 역시 원어민의 요청표현 빈도와는 거리가 먼 요청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홍서연과 김해동(2006)의 연구 결과도 예전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권혜연(2007)의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이르는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에 나타나는 공손 현상을 적극적 공손 전략과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분류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에는 공손 전략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하고 있다. 이러한 영어 교과서 관련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교과서 대화 예문에 사용된 표현들은 대부분 다양한 관계와 상황을 제시하지 않아 학습자들이 화용적 상황에서 실제 의사소통에 있어 필요한 표현들을 다양하게 학습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과서 예문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공손 표현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한 여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요청 화행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행한 연구 유형이 있다. 배정순(2006)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 화행을 분석하고 해당 교과서로 학습한 학습자들을 상대로 화용 능력을 인식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교과서 분석의 결과로는 격식체, 중립체, 비격식체의 요청 화행 문장이 주어진 화용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는 판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타난 격식체 요청 화행 문장의 수는 아주 적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학습자들이 요청화행 문장의 격식성 정도를 주어진 화용적 상황에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측정하는 것은 설문을 통해 실행하였으며 설문 분석 결과 인식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손 표현을 중심으로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 분석을 시도한 홍이선(2002)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상급 수준에 있는 영어 학습자라 할지라도 공손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며 이러한 공손 표현을 구사하는 것을 문법이나 발음보다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 선행 연구자들은 영어 교과서가 화용적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화용적 지식을 보완하여 가르쳐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들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인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에 결과의 신뢰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특징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표현의 기준을 원어민 영어 교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기준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영어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우리나라 영어교사, 우리나라 학생을 포함하여 비교 연구 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주로 기준을 원어민 자료에 근거하였다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교육한 경험이 있는 영어 교사를 비교의 준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III. 연구 방법

1. 인식 조사 설문 대상자

1) 인적 배경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인식 조사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 원어민 영어교사, 한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인적 배경 자료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들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부록 참조)를 통하여 얻었다. 설문지의 인적 배경 관련 설문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뉜다. 1번 문항에서 5번 문항까지는 연구 참여자의 성별, 교직 경력 등의 기초적인 배경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6번 문항에서 10번 문항까지는 영어 말하기 수업에 대한 설문 대상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 1은 이들의 기본적인 인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조사 대상 응답자의 인적 배경

		대상					
		학습자 (N=60)		원어민 교사 (N=38)		한국인 영어 교사 (N=38)	
		응답자	비율 %	응답자	비율 %	응답자	비율 %
성별	남			16	42.1	2	94.7
	여	60	100	22	57.9	36	5.3
소속 학교	초			26	68.4	11	29.9
	중	60	100	10	26.4	20	52.6
	고			2	5.2	7	18.5

연구 대상 학습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 60명 이었다. 교사의 경우 원어민 남성은 16명, 여성은 22명이 한국인 영어 교사는 남성이 2명, 여성이 36명 참가 하였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보조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본 연구에 관련된 원어민 교사들의 68.4%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인 영어 교사의 경우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강의 전담 교사로 29.9%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중 해외 유학이나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명 (22%)로 나타났고 한국인 영어 교사 38명중 28명(73.7%)이 해외에서 유학 경험이 있거나 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교사 중 21명(55.3%)은 영어교육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력은 1년 이상부터 7년 미만까지가 총 21명 (55.3%)을 차지하였다. 원어민 교사들은 38명 중 대부분(32명, 85%)이 1년에서 4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출신지인 참여자가 26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이러한 인적 배경을 가진 집단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영어 수업에 대한 의견

이들 집단의 영어 수업에 대한 의견도 본 연구에서는 배경 자료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 응답자의 영어 수업에 대한 의견

		대상 (N = 136)								
		학습자 (60)			원어민 교사 (38)			한국인 영어 교사 (38)		
		응답자	비율 %	순위	응답자	비율 %	순위	응답자	비율 %	순위
자가 평가: 뛰어난 언어 영역	듣기	21	15.4	1	3	2.2	5	9	6.6	2
	읽기	21	15.4	1	5	3.7	4	19	14	1
	말하기	7	5.1	4	8	5.9	2	4	2.9	3
	쓰기	9	6.6	3	6	4.4	3	4	2.9	3
한국인 영어 교사 담당	모두	2	1.5	5	16	11.8	1	2	1.5	5
	듣기	4	2.9	4	2	1.5	5	1	0.7	4
	읽기	32	23.5	1	9	6.6	2	29	21.3	1
	말하기	3	2.2	5	6	4.4	4	2	1.5	3
원어민 교사 담당	쓰기	12	8.8	2	13	9.6	1	0	0	5
	모두	9	6.6	3	8	5.9	3	6	4.4	2
	듣기	6	4.4	2	3	2.2	4	2	1.5	2
	읽기	2	1.5	3	2	1.5	5	0	0	5
수업시 영어 사용 빈도	말하기	51	37.5	1	32	23.5	1	21	15.4	1
	쓰기	1	0.7	4	5	3.7	3	1	0.7	4
	모두	0	0	5	8	5.9	2	2	1.5	2
	한국어만	4	2.9	3	1	0.7	4	1	0.7	5
학생의 교재 말하기 부분 이해도	영어우선	48	35.3	1	6	4.4	3	15	11	1
	한국어우선	1	0.7	4	5	3.7	2	10	7.4	2
	같은 정도	7	5.1	2	0	0	5	8	5.9	3
	영어만	0	0	5	26	19.1	1	4	2.9	4
교재 말하기 부분 이해도	20%이하	0	0	5	0	0	4	0	0	4
	21- 40%	2	1.5	3	9	6.6	3	5	3.7	3
	41- 60%	1	0.7	4	16	11.8	1	12	8.8	2
이해도	61- 80%	16	11.8	2	13	9.6	2	21	15.4	1
	81-100%	41	30.1	1	0	0	4	0	0	4

본인의 영어 능력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영역으로 듣기와 읽기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자신 없어 하는 영역으로는 말하기를 꼽았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우리나라 학습자들과 한국인 영어 교사들이 유사하며 원어민 교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 영어 교사의 수업에 관해서 학생 응답자와 한국인 교사 응답자 들은 한국인 교사는 주로 읽기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원어민 응답자의 경우 한국인 교사들이 쓰기에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수업 중에 한국어 보다는 영어를 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응답순위 1위로 가장 높았고 이는 교사 집단의 응답 순위 1위와 같다. 하지만 원어민 집단은 영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응답 1 순위이다.

학생 집단의 경우 자신들이 교재의 말하기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81-100%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로 1순위를 차지 하였다. 그러나 원어민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재의 말하기 영역에 41-60%정도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학생들과 한국인 영어 교사들은 매우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원어민 교사와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교실에서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영어 교사의 역할이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학생과 원어민 교사와의 응답상의 차이점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교재의 말하기 부분 이해 정도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과도하게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은 실제 의사 소통 상황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2. 자료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원어민과 비교하여 볼 때 과연 공손의 정도를 잘 인식하고 있는가를 교과서의 대화 예문을 통하여 점검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와 면담이 자료 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 제작을 위하여 우선 2012년 현재 7차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5종을 채택하였다. 비교적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의 기준을 두기 위해 교과서의 채택 기준은 서울시 11개의 교육지원청에 속한 중학교들의 사용 교과서 목록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비록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설문을 위한 문항 추출에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교과서 내용 중 분석용 표현 추출 대상으로는 각 교과서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두 화자가 대화를 주고받으며 길이가 짧지 않은 표현으로 하였다. 출판사별 추출 영역에 관한 정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교과서 별 추출 영역

교과서	출판사	저자(출판년도)	분석 영역	단원수
A	두산동아	김성곤, 송미정, 윤정미, 박용예, 문도식, 류애현, 김춘수, Haas, J. L. (2010)	1) Listen & Talk 2) In Conversation	11
B	두산동아	이병민, 박기화, 임인재, 문영인, 김영숙, 안성은, 최태원, Kim, C. H. (2010)	1) Listening & Speaking 2) Conversation 3) Talk & Play	12
C	지학사	이다미, 김경환, 장영준, 한호, 이정화, 고미라, 이수열. (2010)	1) Listening & Speaking 2) Function File	11
D	천재교육	김덕기, 안병규, 오준일, 신인숙, 김서령, 김현숙. (2010)	1) Listen & Talk 1,2 2) Real-Life 3) Real-Life Activity	10
E	천재교육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김신혜, 최아정, Hall, G. (2010)	1) Listen & Speak1,2 2) Tune in	12

이들 교과서의 대화문 부문에서 추출한 요청 표현을 중심으로 우선 사회적 지위, 사회적 거리, 관계, 친밀감, 총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는 Brown과 Levinson(1987)의 공손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체면 위협 행위의 요소를 기본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 작성시 다양한 관계와 화제를 포함하도록 보완 하였다. 그간의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 요청 화행에 대한 선행연구(배정순, 2006; 주현주, 2012; 홍이선 2002)을 살펴보면 이들 교과서가 다양한 사회적 변인과 장면, 화제 등을 제시하지 않아 영어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공손성에 대한 원어민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면 되도록 다양한 표현을 조사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도구 구축의 방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 구축을 위해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가 어느 쪽이 더 지위가 높은지를 구별하였고 아는 사람과의 대화인지,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인지에 따라 공손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것 또한 구분 하였다. 아는 사이라도 친구와의 대화와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같은 윗사람들과의 대화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화자 간의 친밀도 또한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 보고 다양한 표현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손 전략도 분류 기준의 하나로 활용 하였다. 공손 전략 중 적극적 공손법은 청자의 적극적 체면, 즉 스스로 주장하는 적극적인 자아 이미지를 지켜주려는 언어적 행위이다(Brown & Levinson, 1987). 일반적으로 교과서의 대화문은 대화 참여자의 조화로운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적극적 공손법이 있는 상황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배정순, 2006). 특히 본 연구는 제시된 대화문 요청 표현의 공손 정도에 관하여 설문 응답자들의 인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청자가 자신의 영역과 의지를 지키고자 하는 소극적 체면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극적 공손법을 주된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요청 부담의 정도(Hudson, Detmer & Brown, 1992) 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교과서에 제시된 예문에는 요청의 부담 정도가 높은 화용적 상황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충분한 상황 묘사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요청의 부담 정도는 분류 요소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설문 조사 시간 동안 응답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20문항의 대화 예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 예문이 들어간 대화문에 대하여 4점 척도, ‘매우 공손하지 않음’, ‘공손하지 않음’, ‘공손’, ‘매우 공손’으로 응답자들은 응답하였다. 이 설문 20문항의 문항신뢰도는 크론바 알파 .74(N = 136)로 문항이 비교적 신뢰성이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이 판명 되었다. 이들 예문에 대한 분석적 정리는 아래와 같다.

표 4
조사 대상 설문 문항 분석

설문 문항	출처: 교과서	초점 요청 표현	대화내용분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거리	관계	친밀도	공손전략
1	C	You'd better not stay up all night.	의미에 의한 도출	화자 > 청자	아는 사이	아빠-딸	상	사용하지 않음
2	C	Why not watch a DVD with me this evening?	제안성 어구	화자 = 청자	아는 사이	친구-친구	상	질문
3	B	I'd like to check out this book.	소망 표시	화자 < 청자	모르는 사이	소년-사서	하	관습화된 간접표현
4	C	You're supposed to be back by 9 o'clock.	의미에 의한 도출	화자 > 청자	아는 사이	아들-엄마	상	사용하지 않음

5	C	I hope you all have a nice weekend.	소망 표시	화자 > 청자	아는 사이	선생님-학생	상	사용하지 않음
6	C	Why do you think they chose him as the best teacher?	예비적 조건 언급	화자 = 청자	아는 사이	친구-친구	상	질문
7	B	Would you mind reading my writing?	예비적 조건 언급	화자 < 청자	아는 사이	학생-선생님	중	예우 표시
8	D	How may I help you?	약화된 수행문	화자 = 청자	모르는 사이	점원-고객	하	관습화된 간접표현
9	A	These boxes are too heavy. I can't move them.	약한암시/강한암시	화자 = 청자	아는 사이	친구-친구	상	사용하지 않음
10	E	Can you make it at 6 in front of the bus stop?	예비적 조건 언급	화자 > 청자	아는 사이	소년-Mr. Ali	중	예우 표시
11	C	Your name and email address, please?	법에 의한 도출	화자 = 청자	모르는 사이	직원-소년	하	부담의 최소화
12	A	Is it okay if I close the window?	예비적 조건 언급	화자 = 청자	모르는 사이	낮선이 - 낮선이	하	질문
13	A	How far is it from Seoul to Cheonan?	의미에 의한 도출	화자 = 청자	모르는 사이	낮선이- 낮선이	하	사용하지 않음

14	A	Which one do you think will look better on your dad?	예비적 조건 언급	화자 = 청자	모르는 사이	고객-점원	하	질문
15	A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의미에 의한 도출	화자 = 청자	모르는 사이	의사-환자	하	비인칭화 전략
16	A	Make sure you don't sit too long at the computer.	법에 의한 도출	화자 > 청자	아는 사이	아들-엄마	상	사용하지 않음
17	D	Do you know when they're moving?	예비적 조건 언급	화자 = 청자	아는 사이	친구-친구	상	질문
18	D	Why don't you exercise?	제안성 어구	화자 = 청자	모르는 사이	의사-환자	하	부담의 최소화
19	C	Would you help me find Gate 14?	예비적 조건 언급	화자 = 청자	모르는 사이	직원-승객	하	관습화된 간접표현
20	C	Can I talk to Mike, please?	예비적 조건 언급	화자 = 청자	아는 사이	지호-지호친구가족	중	관습화된 간접표현

설문 자료의 양적 분석을 위해서는 SPSS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세 집단의 기초 자료 설문에 대한 결과 값을 산출하였다. 공손함의 정도에 관한 집단 간 응답 결과 추리 통계 분석으로는 카이 제곱 검증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 < .05$ 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손성에 관한 위의 설문에 참여한 원어민 교사, 한국인 교사, 학생 중 각 집단에서 2명씩을 선별하여 30분간 반 구조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반 구조적 인터뷰 내용으로는 공손 표현에 있어 영어와 한국어 표현의 차이점과 영어로 공손 표현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 각기 다른 집단이 생각하는 가장 공손한 표현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과 끝으로 영어 교과서 말하기 부문 수업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보충할 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미리 실시한 공손성 정도의 설문 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원어민 교사, 한국인 교사, 학생의 집단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을 골라 답을 고르게 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도록 진행하였다.

학생 중 심층 인터뷰가 가능한 영어 수준을 가진 학생 두 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반에서 영어 성적이 최상위권 학생들이었다. 한국인 교사는 현재 중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력은 짧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한 경험이 풍부한 교사와 교직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한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원어민 교사는 한국과 서양 문화가 가진 문화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선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표 6은 영어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학생을 상대로 서로 다른 상황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공손 전략을 사용한 20개의 설문 문항 중 응답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8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학생과 원어민 교사와의 인식 차이 문항 (학생 = 60, 원어민 = 38)

설문 문항	출처: 교과 서	초점 요청 표현	집단	매우 공손 하지 않음		공손 하지 않음		x^2	p
				학생	원어민	학생	원어민		
1	C	You'd better not stay up all night.	학생 원어민	2 3	14 14	33 21	11 0	9.402	0.024
2	C	Why not watch a DVD with me this evening?	학생 원어민	3 0	23 1	25 28	9 9	19.374	0.000
3	B	I'd like to check out this book.	학생 원어민	2 0	11 1	34 22	13 15	8.539	0.036
6	C	Why do you think they chose him as the best teacher?	학생 원어민	0 0	15 2	39 30	6 6	6.504	0.039
9	A	These boxes are too heavy. I can't move them.	학생 원어민	5 0	29 13	22 24	4 1	8.470	0.037
13	A	How far is it from Seoul to Cheonan?	학생 원어민	0 0	21 3	29 34	10 1	17.188	0.000
14	A	Which one do you think will look better on your dad?	학생 원어민	2 0	17 3	35 32	6 3	8.420	0.038
15	A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학생 원어민	1 0	17 4	37 22	5 12	11.378	0.010

문항 1번의 경우 원어민 교사와 학습자의 공손 표현 정도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항 1번은 화자인 아버지가 청자인 딸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는 아버지가 높고 사회적 거리는 가까운 사이이다. 원어민 교사 응답자의 45%가 ‘공손하지 않음’ 혹은 ‘매우 공손하지 않음’ 이라고 답변한 반면 학생들은 27%만이 공손하지 않거나 매우 공손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Hijirida와 H. M. Sohn(1986)의 연구에서처럼 한국인은 공손 표현에 있어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즉, 학생들은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권위적인 표현에 있어 공손성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2의 경우 친한 친구 사이에서 명령이 아닌 제안을 사용했으므로 공손하다고 응답한 원어민 교사가 38명 중 37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학생 집단은 ‘공손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60명중 26(43%)명으로 상대적으로 많다. 이처럼 학생 집단과 원어민 집단과는 인식의 큰 차이를 보인다. 문항 6번 또한 친구 관계와 관계된 문항으로 이 문항에 관한 인식의 차이 또한 학생 집단과 원어민 교사 집단간에 드러난다. 학생들은 15(25%)명이 공손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원어민 교사 집단은 38명중 2(5%)명 만이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응답하였다. 문항 9번도 친한 친구 관계에 관련된 요청 표현으로 원어민 교사 집단은 공손하지 않음에 응답한 응답자가 36%인 반면 학생들은 56%가 공손하지 않은 표현으로 응답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표현에 있어서 공손성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 원어민과 다소 인식차가 빈번함을 나타내고 있다.

문항 3번은 소년과 도서관 사서의 관계로 사회적 지위는 도서관 사서가 높으나 잘 모르는 사이이다. 이 문항에 대해 학생 집단은 ‘매우 공손하지 않음’ 또는 ‘공손하지 않음’으로 인식한 경우가 13(21%)명 있었으나 원어민 교사는 1명을 제외한 35명의 응답자가 ‘공손’ 또는 ‘매우 공손’한 표현이라고 응답 선택을 하였다.

문항 13번은 낯선 사람끼리의 대화로 길을 묻는 상황의 대화인데 사회적 지위가 동등하지만 친밀도가 낮은 관계이다. 이 문항의 경우 학생들은 응답자의 35%가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응답하고 원어민 교사는 38명의 응답자 중 3(8%)명만이 ‘공손하지 않음’ 에 답했다. 14번 문항은 고객과 점원의 대화인데 13번과 유사하게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친밀도가 낮은 관계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 학생 응답자의 32%는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응답했고 원어민은 3(8%)명 만이 ‘공손하지 않음’ 이라고 응답했다. 문항 15번의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흔히 오고 가는 일반적인 대화이다. 학생 응답자의 30%가 공손하지 않은 표현으로 간주하였고 원어민은 4(11%)명 만이 ‘공손하지 않음’ 이라고 응답했다.

사회적 변인에 따른 집단 간 공손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문항 2, 6, 9번은 친한 친구 관

계라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서로 가까운 사이들의 대화이고, 13, 14, 15번은 화자와 청자 간의 권력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적이거나 또는 처음 만난 모르는 사이들의 대화이다. 반면 문항 3번은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가 낮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문항 1번은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가 높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화이다.

이들 학생의 응답과 한국인 영어 교사와의 응답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흥미롭다. 설문에 주어진 표현을 공손하지 않음과 공손함으로 양분하여 응답한 빈도를 추리 통계 검정한 결과 차이가 드러나는 문항은 6번($x^2 = 6.231, p = 0.012$), 10번($x^2 = 4.928, p = 0.026$), 11번($x^2 = 11.265, p = 0.001$) 3문항에 불과하다. 10번 문항과 11번 문항의 경우 학습자에 비하여 한국인 교사가 더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6번의 경우 학습자가 더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한국인 영어 교사와 원어민 교사와의 응답을 역시 양분하여 빈도를 추리 통계 검정한 결과 두 집단간 응답 차이는 2번 ($x^2 = 17.049, p = 0.000$), 9번($x^2 = 5.278, p = 0.022$), 10번 ($x^2 = 13.300, p = 0.000$), 16번($x^2 = 7.600, p = 0.006$) 번의 4 문항에서 드러났다. 한국인 교사들이 원어민 교사들에 비하여 이들 표현들이 더 공손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결국 원어민 교사 집단과 한국인 영어 교사 집단의 응답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 수는 위에서 살펴 본 학생 집단과 원어민 교사 집단간의 유의미한 응답의 차이가 있는 문항 수 보다는 적었다. 이는 한국인 교사나 학생들의 공손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과서를 가르치는 주체로서의 한국인 교사 집단과 학습의 대상인 학생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것으로 교사의 인식이 학습자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한국 문화가 가진 문화적 특수성이 - 사회적 지위의 차이 및 친밀감의 정도에 따른 관계 구별 -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면담을 통해 세 집단의 공손 표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원어민 교사와 학생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 빈도차이를 보인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1번은 원어민 교사들의 결과에 있어 비교해서 ‘공손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이 높았었는데 인터뷰에는 6명 중 3명이 ‘공손하지 않음’, 나머지 3명이 ‘공손’ 하다고 응답하였고, ‘공손하지 않음’ 이라 응답한 응답자들은 명령을 하는 것 같은 충고보다는 제안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공손’ 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부녀 관계에서는 쓸 수 있는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공손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문항 2번은 설문 결과에서 원어민 교사들은 ‘공손하지 않음’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명 중 1명인 반면에 ‘공손하지 않음’이라 답한 학생 응답자가 많았던 문항이다. 원어민 교사 인터뷰 결과 응답자 전원이 ‘공손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가까운 친구 사이에 제안 성 어구를 사용하여 요청하였으므로 공손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문항 3번은 원어민 교사 대부분 ‘공손’ 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학

생 집단은 ‘공손하지 않음’에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던 문항이다. ‘공손’하다고 생각한 피 면접자는 대화의 화자가 완전하고 격식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공손’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문항 6번에 대하여 면담자 대부분이 ‘공손’하다고 라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친한 친구 사이의 중립적인 질문 형태라 볼 수 있기 때문이라 서술하였다. 문항 13번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실을 묻는 중립적인 문장이라 볼 수 있는데, ‘공손하지 않음’이라 응답한 피 면접자의 의견은 청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청자가 그 대답을 알고 있다고 가정 아래 화자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손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에 ‘공손’하다고 응답한 인터뷰 참여자는 질문 자체가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문항 15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흔히 오고 가는 일반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공손하지 않다’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나, 좀 더 격식을 차린 문장으로 “How may I help you?”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개별 면담 결과는 집단적인 설문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고려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공손한 정도를 판단 근거로 삼고 있음을 면담 결과 주목 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 7차 개정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상에 나타나는 요청 표현들을 대상으로 이들 표현의 공손 정도를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제 7차 개정 영어 교과과정의 목표인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영어를 배우는 우리 학습자들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언어사용을 강조하는 화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설문과 면담을 실행한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 예문에 제시된 공손 표현들에 대하여 영어 원어민 교사와 우리나라 학생 간의 공손함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서 제시된 대화문의 요청 표현들의 공손 정도에 대한 학생들과 원어민 교사 집단간 인식의 차이는 카이 제곱 검정 결과 8개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영어 교사의 응답 비교 에서 나타나는 4개의 유의미한 문항 차이와 한국인 교사와 학생 집단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3개의 유의미한 문항 차이보다 크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 예문에 제시된 공손 표현들에 대한 영어 원어민 교사와 우리나라 학생 간의 공손함의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관련하여 한국인 영어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간에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이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해 할 수 있겠다. 이는 한국인 영어 교사와 학생 모두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고 배우는 학습자인 공통점과 같은 문화권 속해 있어 굳어진 문화 간 공손 전략의 특수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추론 가능하다.

둘째, 원어민 교사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인 영어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의 특징을 비교 하여 보았을 때, 원어민들은 ‘공손하지 않음’이나 ‘매우 공손하지 않음’에 응답한 빈도가 다른 두 집단보다 낮았다.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은 원어민들은 설문에 제시된 몇 개의 문항들이 ‘공손’과 ‘공손하지 않음’을 구별하기 어려운 중립적인 표현이라 생각하는 반면, 학생 집단은 영어 공손 표현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손하지 않음’과 ‘매우 공손하지 않음’의 응답 빈도가 원어민보다 높았다. 이는 배정순(2006)의 연구와 권혜원(2007)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어 교과서에는 ‘매우 공손하다’ 할 지나친 격식체의 표현과 ‘매우 공손하지 않다’고 할 만하다 할 지나친 비 격식 표현은 배제되어 있고 중립체의 공손 표현의 비중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매우 공손하지 않음과 매우 공손함을 구별할 만한 표현을 교과서에 자주 접하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 집단의 응답 경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미한 빈도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온 문항들은 문화적 요소가 관계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었다. 1번 문항은 화자인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명령조의 요청이다. 원어민 교사들은 ‘공손하지 않음’ 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5% 인데 반하여, 한국인 영어 교사 29% 와 학생 27%가 ‘공손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인 집단은 원어민 집단보다 청자의 사회적 신분, 나이, 친숙함 등의 변인에 따라 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원어민 집단은 그 현상이 덜하여 손아래, 손위, 낮선 사람에 별 구애 받지 않고 이들을 대등한 관계로 인식한다는 기존의 연구(최은영, 2001)와도 일맥상통한다.

넷째, 사회적 변인에 따른 집단 간 공손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들이 있다. 문항2, 6, 9번과 같이 친구 관계와 관계된 문항은 학생 집단과 원어민 교사 집단간에 인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문항 13, 14, 15번은 화자와 청자 간의 권력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적이거나 또는 처음 만난 모르는 사이들 간의 대화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러한 관계들과 관련된 표현들의 공손성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원어민과 다소 인식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상황과 때에 맞는 적절한 영어 요청 표현을 학습자들이 구사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 부문에는 다양한 장면과 대화자들의 관계가 제시되지 못하여 한정된 상황과 정형화된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교과서마다 접치는 표현들이 많았고 대부분 상황

들에서 공손 표현은 중립체적인 표현들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극 존칭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공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 이에 교과서의 대화문 구성에 있어서 장면과 대화자들 간의 관계, 사건, 시점 등을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하여 실제 생활과 보다 가까운 표현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어민 교사 그리고 학생의 집단 간 비교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손 표현 전략은 그 언어권 국가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면담을 통하여 원어민 교사가 강조한 바는 영어 교재 개발자이거나 한국인 교사들에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라고 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요청 표현들을 가르치려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대상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어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있으므로(이정민, 현대덕, 2013) 특정한 표현에 대해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과 화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공손 정도에 대한 표현을 학습하게 하려면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및 교재 개발자 훈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어민 교사들의 의견이 반드시 정답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원어민 교사들의 요청 표현에 대한 공손 정도의 인식은 상당히 유연한데 비하여, 한국인 학생들은 지금까지 배워온 정형화된 공손 표현에 익숙해져 있어 공손 정도를 구분하는데 있어 확신이 없어 보였다. 학생들의 화용 능력 신장에 관심이 더욱 기울여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영어교과서의 다양한 표현들과 상황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선 연구들에서 많이 지적되어 왔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 체계에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휘나 표현들이 검정 기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에 맞춰 출판사나 집필자들은 한정된 상황과 표현들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과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은 설정하지만, 조금 더 유연한 기준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의 개선은 교과서 검정의 지침이 되는 교육 과정의 의사소통 예시문을 개선 하는 것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5종만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요청 표현을 선정하였으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어 교과서의 전체를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 향후 모든 교과서를 분석하여 요청 표현에 대한 공손성 정도를 연구 한다면 개별 교과서들 간의 차이점 및 공통점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보인다. 둘째, 원어민 교사 38명, 한국인 영어 교사 38명, 학생 60명으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이 원어민과 한국인 학생의 정형화된 차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는 인원의 부족과 통계적 표본 추출이 시행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또한 학생이 여학생에 국한되었다는 점에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시도한 연구 방법을 토대로 체계적인 통계적 표본 추출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보편성을 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 학생의 경우 공손 표현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여 사용해 왔는지, 원어민의 경우 한국인이 공손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불편하게 느꼈는지에 대한 후속 조사가 이루어지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공손 정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할 때 특정표현을 학생들이 이미 교과서의 해당 단원을 통해 학습한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영어 표현의 공손 정도, 특히 말하기에서는 영어 표현 자체보다도 그 표현을 말하는 방식 즉, 발음적인 측면이 공손 정도를 느끼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말하기 중심 표현에서 공손 정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발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및 논의도 향후 연구에는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공손 정도라는 것이 같은 원어민 집단 내에서도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 되어 질 수 있는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므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어민 집단도 일반인과 교사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흥미로운 비교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후속 연구들은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광범위하게 교과서를 분석하여 더욱 다양한 표현들을 추출하고, 통계적 표본 추출기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보편성을 보다 높이면 좋으리라 보인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과서 기반의 화행 표현과 관련된 연구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교과서의 화행 표현과 관련된 연구를 더욱 광범위하게 촉발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덕기, 안병규, 오준일, 신인숙, 김서령, 김현숙. (2010). *Middle School English*. 서울: 천재교육.
- 김성곤, 송미정, 윤정미, 박용예, 문도식, 류애현, 김춘수, Haas, J. L. (2010). *Middle School English*. 서울: 두산동아.
- 김영란. (2003).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표현*.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권혜연. (2007). *영어과 교과서 공손 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배정순. (2006).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화용론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서울.
- 손위철. (1999). *중학생의 영어 요청 화행 분석*. 석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울산.

- 이다미, 김경환, 장영준, 한호, 이정화, 고미라, 이수열. (2010). *Middle School English*. 서울: 지학사.
- 이병민, 박기화, 임인재, 문영인, 김영숙, 안성은, 최태원, Kim, C. H. (2010). *Middle School English*. 서울: 두산동아.
- 이원표. (1996). 한국 대학생의 칭찬 화행에 나타난 공손법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1, 107-144.
- 이정민, 현대덕. (2013).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읽기 자료 비교 분석. *현대영어교육*, 14(4), 263-286.
-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김신혜, 최아정, Hall, G. (2010). *Middle School English*. 서울: 천재교육.
- 주현주. (2012).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 실린 대화문의 화용론적 연구: 요청과 거절 화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춘천.
- 최은영. (2001). *영어 공손 표현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홍서연, 김해동. (2006).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 분석과 학습 영향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9(1), 451-476.
- 홍이선. (2002).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 분석: 공손 표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홍진욱. (1999). 영어의 공손표현과 의미에 관한 비교 연구. *영어교육*, 54(1), 221-252.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larendon Press.
- Bach, K., & Harnish, R. (1982).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s*. Cambridge, MA: MIT Press.
- Beebe, L., & Takahashi, T. (1989). Do you have a bag? Social status and patterned vari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S. Gass, C. Madden, D. Preston, & L. Selinker (Eds.), *Vari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Discourse and pragmatics* (pp. 103-125).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lum-Kulka, S. (1987). Indirectness and politeness in request: Same or different? *Journal of Pragmatics*, 11(1), 131-146.
- Brown, P., & Levinson S. C. (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N. Goody (Ed.),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pp. 56-2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 R. (1993). Responding to compliments: A contrastive study of politeness strategies between American English and Chinese speakers. *Journal of Pragmatics*, 20(1), 49-75.
- Ellis, R. (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 Press.
- Ellis, R. (1997). The empirical evaluation of language teaching materials. *ELT Journal*, 51(1), 36-42.
- Ervin-Tripp, S. M. (1976). Is Sybil there? The structure of American English directives. *Language in Society*, 5(1), 25-66.
- Gibbs, R. W. Jr. (1981). Your wish is my command: Convention and context in interpreting indirect request.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0(6), 431-444.
- Hijirida, K., & Sohn, Ho-Min. (1986). Cross-cultural pattern of honorifics and sociolinguistics sensitivity to honorific variables: Evidence from English, Japanese and Korean. In Ho-Min. Sohn (Ed.), *Linguistic expeditions* (pp. 425-435). Seoul: Hanshin.
- Hudson, T., Detmer, E., & Brown, J. D. (1992). *A framework for testing cross-cultural pragmatics*.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Ide, S. (1989). Formal forms and discernment: Two neglected aspects of linguistic politeness. *Multilingua*, 8(2/3), 223-248
- Lakeoff, R. T.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s of the 9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USA*, 9, 292-305.
- Leech, G.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Searle, J. R. (1976). The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1), 1-24.
- Tannen, D. (1981). New York Jewish conversational styl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981(30), 133-149.
- Wolfson, N. (1988). The bulge: A theory of speech behavior and social distance. In J. Fine (Ed.), *Second language discourse: A textbook of current research* (pp. 21-38). Norwood, NJ: Ablex.

부록

부록 1: 한국인 영어 교사용 설문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교사의 기본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 (1-10)
 - 각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거나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2. 중학교 3학년 대화부분의 **요청 표현의 공손함** 정도를 측정(Dialog1-20)
 - 각 대화문에 제시된 **상황**과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밑줄 그어진 표현**의 공손함의

정도를 상자 안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무례함→→→→4. 매우 공손함

(본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문에 응하여 주십시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답 내용은 학문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누구에게도 공표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때, 각 문항별로 잘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I. 교사에 대한 기본 사항

(1-5) 다음 질문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쓰거나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답하십시오.

- 1. 전공분야: (학부) _____ (대학원): _____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시고 있다면? _____ (과정)
- 2. 교직 경력 _____ (년)
- 3. 현재 가르치는 학년 : 초 _____ 학년 중 _____ 학년 고 _____ 학년
- 4. 영어권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수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I ① 예 () _____ (개월/년) ② 아니오. ()
- 5. 본인의 영어능력 중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듣기 ② 읽기 ③ 말하기 ④ 쓰기 ⑤ 듣기.읽기.말하기.쓰기

II. 영어 수업

(6-10) 다음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에 따라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답하십시오.

- 6. 한국인 교사가 영어 수업에서 가장 비중 있게 가르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듣기 ② 읽기 ③ 말하기 ④ 쓰기 ⑤ 듣기.읽기.말하기.쓰기
- 7. 원어민 교사가 영어 수업에서 가장 비중 있게 가르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듣기 ② 읽기 ③ 말하기 ④ 쓰기 ⑤ 듣기.읽기.말하기.쓰기
- 8. 수업에서 본인이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① 전혀 사용하지 않음 ②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함
③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함 ④ 영어와 한국어의 사용 빈도가 비슷함
⑤ 영어만 사용함
- 9.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재에 제시된 말하기 표현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 이하 ② 21-40% ③ 41-60% ④ 61-80% ⑤ 81-100%
- 10.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재에 제시된 말하기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일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① 20% 이하 ② 21-40% ③ 41-60% ④ 61-80% ⑤ 81-100%

1번에서 10번 문항에 대한 설문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Dialog1-20 문항에 관한 설문에 답해주세요!¹

(There is no right answer. Please, check each question based on your opinion)

Dialog 1 dad - daughter

Dad: Have you finished reading Jane Eyer?

Yujin: Yes, I have

Dad: Already?

Yujin: Yes, I spent all night reading it.

Dad: **You'd better not stay up all night.**

Yujin: Sorry, but I couldn't put it down.

→ **You'd better not stay up all night.**

1. very impolite	2. impolite	3. polite	4.very polite

Dialog 2 friend - friend

Amy: What's the matter? You look unhappy.

Yujin: I didn't do well on my art project.

Amy: Take it easy. Let's see a movie for a change this afternoon.

Yujin: I'm afraid I can't I have to go to my brother's tennis match at 2.

Amy: Then, **why not watch a DVD with me this evening?**

Yujin: That sounds terrific.

→ **Why not watch a DVD with me this evening?**

1. very impolite	2. impolite	3. polite	4.very polite

¹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학생용, 한국인 영어 교사용, 원어민 교사용이 있음.
 이곳에서는 한국인 영어 교사용을 제시하였음. 대화문 1번과 2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않았음.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이경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120-847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274-56, 미주맨션 301
Tel: (02) 762-5252
Email: lkmo79@naver.com

김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02) 2173-3017/ H.P.: 010-8448-3715
Email: khd@hufs.ac.kr

Received 15 March 2014

Revised 0 May 2014

Accepted 16 May 2014